단체장을 인기투표로 뽑나

장흥·강진 서류 검증없이 여론조사만으로 결정
민주 전남도당 공천 룰 변경…기득권 후보자 유리 지적

누구를 위한 공천 룰 변경인가. 민주당 전남도당이 공천 심사를 앞두고 특정 지역의 공천 룰을 변경키로 하면서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전남도당이 변경하려는 공천 룰이 정치 신인이 아닌, 탈당 전력 등 해당 행위를 한 기득권 정치 후보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면서 당 내 '입김'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나오고 있다.

11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김승남 전남도당위원장(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위원장)이 전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에 장흥·강진군수 경선을 여론조사(권리당원 50%, 일반군민 50%)만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규정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위원장은 11일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장흥군수 후보 경선을 여론조사 만으로 실시하는 방향의 경선 방식 변경을 공관위에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7명의 후보자 중 이견을 보이고 있는 2명의 후보자가 최종 합의하면 공관위 의결을 거쳐 별도의 서류 검증 절차 없이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김 위원장은 예상했다.

강진군수 후보 경선 방식도 오는 13일 4명의 후보자간 합의를 거쳐 룰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고흥은 지난해 10월 이같은 방식으로 변경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예비경선과 본경선이 모두 권리당원(50%)과 일반 시민(50%)이 참여하는 여론조사 경선으로 진행되면, 참여 후보들이 경선 직전 판세가 불리할 경우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장흥지역의 경우 7차례의 지방선거 중 4차례가 무소속 후보 당선으로 이어진 전례가 있는 만큼 후보의 무소속 출마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이번 장흥군수 민주당 경선에 참여한 김성 후보의 경우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57조 2)은 '정당이 당내경선을 실시하는 경우 경선후보자로 당해 정당의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당해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도 여기에 포함된다.

부작용도 만만찮다. 현행 기초단체장 경선은 공관위의 정체성·기여도(25점), 업무수행능력(10점), 도덕성(15점), 면접(10점) 등 정성평가 60점과 적합도 여론조사 40점을 반영해 1차 컷오프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변경되면 공관위의 도덕성·정체성 검증 등 정성평가가 제외된다. 인지도 위주의 여론조사만으로 후보가 선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정치신인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또 경선 과정에 불복, 탈당했거나 탈당 뒤 무소속으로 출마한 경력이 있는 후보자들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기는커녕, 오랜 정치경험으로 알려진 인지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치신인 확대를 통해 정치 혁신·쇄신을 외치는 중앙당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 단체장과 도·시·군의원을 공천하는 데 공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빚어지는 '줄 세우기 정치'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한 예비후보는 "후보의 도덕성과 자질을 따지지 않고 여론조사만으로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기성 정치인의 기득권을 강화해주는 특혜와 같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위원장은 그러나 "도덕성 등은 이미 검증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경선이 효율적이며, 모든 후보 간 합의해 이뤄진다면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수도권 승리 목표 민주, 서울시장 전략공천? 열린경선?

필승카드 없으면 전략공천
청년·여성 참여 열린경선 주장도

악수하는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국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악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을 전략공천이나 열린 경선으로 진행하자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 "필승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지도부의 다른 결정도 있을 수 있다. 전략공천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한 달을 맞아 이날 국회에서 진행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경선이냐 전략공천이냐의 결정 기준을 묻자 "기준점은 경쟁력"이라고 답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당내 논란 와중에 서울시장에 출마한 가운데 윤 비대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전략공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송 전 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공식 공모 절차를 거쳐 마감됐으니, 그에 따라 경선하면 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윤 비대위원장은 "공천 신청한 후보들 한분 한분이 당의 핵심자산"이라면서도 "선거가 5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의 필승카드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경쟁력을 평가하는 시기"라고 언급했다.

공천 방식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공관위가 우선 논의를 마쳐야 하니 공관위 논의가 끝나는 시점 정도가 되면…"이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경기도지사 경선 룰 문제와 관련해서는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우리 당내에 들어와서 하는 경선이기 때문에 공관위에서 적절히 논의해 결정하겠다"며 "다만 우리 당의 기본 룰(권리당원 투표 50%·일반 여론조사 50%)이 존중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지방 선거 목표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적어도 서울과 경기, 즉 수도권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경기 탈환을 제일 중시한다'고 하자 "우리는 서울 탈환이다"라고 웃으며 답했다.

한편 당내 일각에서 서울시장 공천에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공천 일정이 촉박한 탓에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민주당 한 고위관계자는 "청년과 여성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 경선을 시민참여 열린 경선으로 진행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6·1 지방선거 라운지

이용섭, 친환경 생태물길 4대 프로젝트 발표

이용섭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1일 "친환경 생태물길 4대 프로젝트로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만들어 1000만 관광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환경·생태가 도시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최우선 기준이 됐다"며 "시대를 앞서온 광주가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생태계를 복원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발표한 친환경 생태물길 4대 프로젝트는 ▲영산강 국가정원 지정 ▲황룡강 장록습지 명품 생태관광지 조성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조기 완성 ▲풍영정천 가족 친화형 수변공간 조성 등이다.

그는 "우리 광주는 영산강과 황룡강, 광주천과 풍영정천 등 좋은 생태자원을 갖고 있다"며 "이를 잘 보존하고 가꾸어 우리 아이들에게 그 가치를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 또한 우리 세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강기정 "광주형 3대 공익가치 수당 도입"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11일 "내 삶이 행복한 광주형 3대 공익가치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형 3대 공익가치수당은 '내 삶의 격'이 달라지는 광주를 만들기 위한 인권 정책이자, 민주주의 정책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배려의 가사노동 가치를 인정하고, 도농 격차에도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참여한 시민들의 노력을 보상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광주형 3대 공익가치수당은 가사수당, 농민수당, 참여수당으로 구성된다.

'가사수당'은 전국 최초로 가사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환원하는 것으로, 40대 비경제활동인구 대상으로 복지카드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복안이다.

강 예비후보는 또 시민의 사회적가치 실현 활동을 지원하는 참여수당도 도입한다. 공공안전, 환경, 재난구조, 취약아동서비스, 돌봄,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참여를 지원해 새로운 시민참여 일자리 1만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최용선 나주시장 출마 후보 후원회장에 송영길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나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최용선 예비후보(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선임행정관)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최 예비후보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송 전 대표가 최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아 나주시장 선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후원회장을 맡아달라는 최 예비후보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하며 "최용선 예비후보는 국회와 청와대에서 입법 활동과 국정 위기관리 능력이 검증된 젊은 리더로 빛가람 혁신도시와 나주의 새로운 혁신과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격려했다.

최 예비후보는 "송영길 전 당대표가 후원회장직을 수락한 것은 청년 정치인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절박해진 민주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며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나주에서 반드시 시대교체, 세대교체, 정치교체를 이루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최 예비후보는 천정배 국회의원 정책비서로 정계에 입문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정책팀장, 송영길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활동했으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안보전략·총무인사 행정관, 국정상황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한전KPS에서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 딸기 농가 지원 공약

서채원 강진군수 예비후보는 11일 딸기 농가에 대한 상토 지원과 비닐하우스 지원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서 예비후보는 "200여 강진군내 딸기 재배농가 중 3년 이상 상토 사용 농가가 77%, 5년 이상 상토 사용 농가가 46%에 달해 각종 병충해로 수확량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충분한 물량의 상토를 확보해 고설 재배용(배지) 상토와 육묘용 상토 구입비의 50% 이상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비닐하우스 자재에 대해서도 "현재는 장기용 필름 50%만 지원하고 있다"면서 "비닐하우스 자재 가운데 단기용 필름 구입비는 50%를 지원하고 5~6년 장기용 필름은 100% 지원해 딸기농가의 소득을 크게 증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전원주택 개발부지
담양읍, 다가구, 사옥 등 다용도 부지, 임야, 매매

1 전원주택 개발부지 건물 후면 선산 명지
담양. 금성. 덕성리 덕진산 아래 광주간 20분 4차선 신설도로 근접
• 2층 건물 철근 콘크리트조 적벽돌외벽 스라브즙 129㎡(39평)
• 토지 8,098㎡(2,452평) 50여년생 명품소나무 8주와 정원수 및 과수 380여주 포함
• 경관 수려한 숲속 전원주택 10여체 조성 가능
• 2층 기존 건물 후면 선산 명지 조성 가능 매 7억원

2 전원 주택용 부지와 식재된 조경수 20여년생 8종 1천5백주 포함
• 순창. 금과. 방축리 담양 경계 신설 4차선 I.C 근접 광주간 20분 계획관리지역 전 9,190㎡(2,780평) 느티나무, 소나무 등 20여년생 외 7종 1천5백여주 조경수 포함
• 전원주택단지, 물치장, 펜션, 가든, 커피숍 다목적 사용부지 구내포장 배수로 시설 남향에 아미산 바라본 경관수려 ㎡ 9만원

3 다가구. 고급주택. 사옥 등 다용도 부지(주거 2종)
• 담양읍 양각리 강변 유럽마을 조성지 근접 광주간15분 공용주차장 3면도로접 남향 교통요지 시장인접 다가구 사옥 다용도 부지 4.220m2(1.276평) 매 ㎡ 9십만원

4 임야 내 휴양림 30여년생 편백 1만여주 식재 마을 변방
(1) 영암읍 학송리 계획관리지역, 취락마을 용지 포함. 현 국도 4차선 근접 2023년 고속도로 완공시 톨게이트 300m 지점 광주간 25분 소요, 임야 76,000㎡(22,990평) 구내옹달샘 전원주택지 귀농·귀촌·휴양자 적합 매 ㎡ 6천원
(2) 담양. 월산면 중월리 광주간 25분 임야 62,810㎡(19,000평) 농림지역 농로접 적송다수자생 생약재배 캠핑장. 휴양지 농가주택 가능 매 ㎡ 5천원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삼성홈플러스 길 건너편 동광주빌딩)
대영공인중개사 대표 김용주 010-3454-2389

상가건물 다량보유 부동산매매

담양 월산면 4차선도로변 계획관리 대지
4,200㎡, 4층건물, 2층가든
→ 매가 15억원

영암 신북면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 전, 임야
11,000㎡ 현재 감나무과수원
→ 매가 5억원

나주시 오량동 농공단지 공장용지
3,500㎡, 냉동창고 660㎡, 창고 330㎡
→ 매가 11억원

화순 도곡면 전원주택단지
약 7,400㎡, 전체조성됨, 12필지
→ 매가 20억원

군산시 수송동 지하1층 지상6층 대지
840㎡, 메디컬상가, 보10억 월 3200만원 (부가세, 관리비포함) 은행45억원포함
→ 매가 68억원 (현금 13억원)

해남읍 사찰, 임야
전 36,000㎡ 건물6동 납골당1500기
→ 매가 10억원

두암동 대지
2,900㎡, 건물7동 있음
→ 매가 66억원

동구 지산동 조대후문 먹자골목 상가주택
지하1층 지상3층
→ 매가 7억5천만원

계림오거리 한마음부동산 010-2314-8567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 (한미쇼핑사거리)